

이발사가 외과수술을 했다? 그림에 숨겨진 실수의 의학사



천년 그림 속
의학 이야기

이승구 지음

기원전 4세기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며, 좋은 의사가 되려면 먼저 좋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의 바람과 달리 의학은 수천 년 동안 온갖 실수와 오류를 저질렀다. 한마디로 오늘의 의학은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학이 저지른 실수는 대체로 인체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했다. 혈액형이 발견되기 전 수혈은 목숨을 건 치료법이었다. 17세기의 여러 의사들에 의해 인간과 동물 간 수혈이 이루어졌는데, 일부를 제외하면 환자 대부분이 사망했다.

대전 선병원 국제의료원장인 이승구 박사가 펴낸 '천년 그림 속 의학 이야기'는 의학이 저지른 실수의 역사를 그림과 삽화로 보여준다. 평생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해온 저자가 전해주는 이야기와 그림들은 흥미진진하다. 때로 안타깝고 잔인하며 더러는 감동적이기도 하다.

소독이라는 개념은 19세기에 등장했다. 이전 의료진은 환자의 상처를 단단히 동여매서 썩게 했으며, 더구나 손을 씻지 않아 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 수술 후 감염으로 죽은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의사가 현재와 같은 지위와 모습을 갖춘 것은 오래 되지 않았다고 본다. 고대에는 주술사나 무당이, 중세에는 수도사가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15~16세기에는 이발사가 수술을 하는 등 외과 의사들은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윌리엄 체즐턴이 결석 쇄석술을 시도하면서 하나의 조직에 머물렀던 이발사-외과의사조합은 1975년에 분리됐고, 외과의사들은 독립적 지위를 얻었다.

책은 또한 과거 의학의 실수와 오류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독자들은 극복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의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까지 도달하게 된다. 조기 질병 유전자 검색,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진단기술 개발, 3D-CT를 통한 조직 합성, 로봇 수술의 확대 등도 엿볼 수 있다.

21세기에도 인간은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는다. 어떤 생명체도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다. 저자는 "옛 의학 예술품들과 관련 삽화들을 감상하면서 과거 의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재와 미래의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기를 기원한다.

〈생각정거장·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인이 사랑한 '사랑' '슬픔' 단편소설 24선



소나기

황순원 외 지음

'소나기', '젊은 느티나무', '동백꽃', '메밀꽃 필 무렵', 'B사감과 러브레터', '배따라기', '날개' '복덕방' 등등...

학창시절에 읽었거나, 드라마화 됐던 소설들이다. 황순원, 강신재, 김유정, 이호석, 현진건, 김동민, 이상, 이태준은 한국 현대문학사에 빛나는 단편 작가들이다. '대한민국 스토리 DNA'가 열네 번째 시리즈로 간행한 '소나기-한국인이 사랑하는 단편소설 24선'은 '사랑'과 '슬픔'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수록돼 있다.

사랑은 계절을 넘고 세월을 이긴다. 절

없는 사랑은 있어도, 절 지난 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랑은 시간 속에서 숙성한다.

표제작 황순원의 '소나기'는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세월이 흘러도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할 정도로 순수하고 애잔하다. 걸출한 작가들이 풀어낸 열두 개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독자들을 매료시킨다.

'슬픔'을 소재로 한 소설은 어두우면서도 감렬한 느낌을 준다. 어느 시대나 없이는 사랑들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희구한다. 그러나 박탈과 결핍이 일상이던 세상에서 사람들은 낯을 잃고, 한을 얻는다.

모진 세상 속에서 길어낸 이야기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삶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지 보여준다.

〈새움·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혼군과 간신들이 벌인 천태만상 요지경

〈昏君·어리석은 임금〉

역사의 경고

김영수 지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간신들의 공통된 행태 가운데 하나는 권력자의 과대 망상과 욕망을 대변하는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망국 아니면 망국 일보 직전까지 갔다."

현대판 혼군(昏君)과 간신(奸臣)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다. 어느 시대나 권력에 빌붙어 나라를 망치는 간신들이 있기 마련이다.

작금의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일부 공직자들의 추한 행태는 역사 속의 간신들을 떠올리게 한다.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면 권력을 등에 업고 흑세무민하는 세력이 등장한다. 간신들의 간행은 치밀하고 은밀할 뿐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준다.

혼군과 간신배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부끄러움을 전혀 모른다는 데 있다. 지도자라면 자신들이 부리는 부하가 충신인지 간신인지 잘 알아야 한다. 물론 맡겨 줘야 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간신들에 대한 연구는 중국에 비해 거의 전무한 편이다.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얽힌 관계망이 자기 조상을 간신으로 지목해 비판하는 것을 용



년의 쾌락, 광란의 기록

역사에는 다양한 술책으로 왕을 쥐락펴락하는 간신들이 적지 않았다. 사진은 연산군을 다룬 영화 '간신' 포스터.

납하지 않는다. 여기에 청산되지 못한 왕조체제의 전제, 친일문제, 동족상잔과 분단, 군사독재 등 과거사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

간신과 혼군들이 벌인 천태만상 요지경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 출간됐다. 중국 역사가이자 '사기' 연구가인 김영수(전 연산 원불교대학교) 교수가 펴낸 '역

사의 경고'는 중국의 역대급 간신과 혼군들의 행태와 간신 현상을 분석한다.

저자는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된 체제가 간신 출현의 토대가 된다고 본다. "간신과 혼군은 이란성 쌍생아와 같은 관계"로 상호보완적 관계라고도 덧붙인다.

서한 왕조로부터 황제 자리를 빼앗고 신(新)이란 왕조의 첫 황제가 됐던 왕망

은 위경과 위선의 달인이었다. 조정에서 그는 청렴한 신하로 정평이 났고 각계 여론을 업고 대마사라는 최고 관직에 올랐다. 황후를 간택할 때, 왕망의 딸도 후보 명단에 올랐지만 그는 태황태후를 찾아가 딸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 대신들은 이 사실을 알고 왕망의 딸을 황후로 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절묘한 위장술로 그는 자신의 딸을 황후로 앉혔다.

고사성어 가운데 '유수박마(溜須拍馬)'가 있다. '수염을 끌고 말 엉덩이를 두드린다'는 의미인데 '알랑거리다'는 뜻으로 확대된다. '송사(宋史)'에 '정위(丁謂)·966~1037'라는 간신이 나온다. 그는 구준이라는 지도자를 극찬한 태도로 모셨다고 한다. 어느 날 관저에서 식사를 하는데, 구준이 국을 마시다 수염에 흘렸던 모양이다. 정위는 얼른 일어나 구준의 수염을 닦아 주었다.

역사에서 간신의 천박한 일러거림에 넘어간 군주가 한 둘이 아니다. 웃는 낯에 침을 뱉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간신들은 이런 장기를 심문 활용했다. 저자는 "과분한 칭찬이나 아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꾸짖어 두 번 다시 그런 알뜰한 수작을 부리지 못하게 해야만 간신이 더는 크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누가 간신이고, 누가 간신에 놀아날 혼군인지 냉철하게 가려내야 한다. 지도자 하나 잘못 뽑은 결과는 엄청났다. 저자는 "우리의 혼군과 온갖 부류의 간신들에게 역사의 평가는 결코 건너뛰는 법이 없다는 경고를 보낸다"며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조금씩은 다 갖고 있는 간신 현상에 대해 철저한 성찰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빛점·누룩·평상 ... 우리가 잊고 있던 전통문화



아름다운
우리문화 산책

김영조 지음

조선시대 사대부가 여성은 아침마다 빗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이때 빗질(빗질) 사이에 낀 때를 빼는 술, 빗치개(가르마를 타거나 빗살 틈에 낀 때를 빼는 데 쓰는 도구), 뒤꽂이(쪽편 머리 뒤에 덧꽂는 비녀 이외의 꾸미개)

같은 도구들을 빗점에 넣어두었다. 그러나 요즘에 빗점을 볼 수 있는 곳은 박물관 외에는 없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전통 문화를 여덟 가지 키워드로 소개한 책이 나왔다. 누룩, 문갑책장, 평상 등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일상에서 널리 쓰였던 가구와 세간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나눔을 실천한 한국의 명문 종가'의 저자 김영조씨가 펴낸 '아름다운 우리 문화 산책'은 국악과 춤, 도자기와 탭, 민속품, 옷과 꾸미개 등을 소개한다.

〈인물과사상사·1만6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의 진짜 모습



비커밍
스티브 잡스

브렌트 쉐넬러 외 지음

스티브 잡스의 진짜 모습이 매우 정확하게 담긴 책 '비커밍 스티브 잡스'가 나왔다.

지난 2011년 10월 5일, '애플'의 창립자이자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후 그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매체, 도서, 동영상 등으로 쏟아져 나왔

다. 하지만 잡스와 가깝게 지내온 가족, 친지, 동료들은 그러한 잡스의 이미지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그것은 진짜 스티브 잡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5년, 스티브 잡스의 결서 25년간 함께해온 전기 작가 브렌트 쉐넬러가 리드 테트렐리와 함께 새로운 잡스의 책 '비커밍 스티브 잡스'를 내놓았다.

잡스의 가족과 친지, 애플의 임직원들이 책의 내용을 다듬고 진실한 스티브 잡스의 모습을 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해움·2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